

독립운동가 AI 복원 영상이 집단 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 : 틱톡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AI-Restored Independence Activist Videos and Collective Memory Formation: An Analysis of TikTok Comments

이준영¹

Jun Young Lee¹

요 약

본 연구는 AI 기술로 복원된 독립운동가 영상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집단 기억 형성과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삼일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영웅들’ SNS 채널에 올린 15명의 독립운동가 사진을 Kling AI와 Hailuo AI의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로 변환한 복원 영상과 퀴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된 영상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틱톡에서 3개월간 243,400회 조회된 해당 영상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총 1,175개 댓글 중 의미 있는 284개를 내용분석 및 감정 분석한 결과, 감사/경의 표현(38.3%), 애국심 표현(21.8%), 감정적 반응(1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복원 영상은 독립운동가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자기 성찰 및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정치적 언급 비중이 낮아 이념을 초월한 통합적 집단 기억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젊은 이용자들의 반성적 학습 반응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빈번히 관찰되어, AI 기반 역사 콘텐츠가 비형식 역사교육의 효과적 도구이자 세대 간 통합적 집단 기억 형성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AI 복원 기술, 집단 기억, 틱톡, 독립운동가, 디지털 미디어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AI-restored independence activist videos on collective memory formation among digital natives. The research examined quiz-format videos created by the ‘Heroes of Korea’ channel, which converted photographs of 15 independence activists using Kling AI and Hailuo AI’s image-to-video technology fo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in 2025. Among videos posted on TikTok, YouTube Shorts, and Instagram Reels, the TikTok version showed the highest engagement. Content and sentiment analysis of 284 meaningful comments from the 1,175 total comments on the TikTok video, which garnered 243,400 views over three months, revealed expressions of gratitude/respect (38.3%), patriotism (21.8%), and emotional responses (15.4%). Notably, reflective learning responses and renewed historical interest were frequently observed among younger users, confirming that

¹ Department of Media Creator,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Korea [Professor]
e-mail: ejuneyoung@kiu.ac.kr

* 이 논문은 2025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Received(July 22, 2025), Review Result(1st: August 10, 2025), Accepted(September 9, 2025), Published(September 30,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AI-based historical content serves as an effective tool for informal historical education and contributes to intergenerational collective memory formation.

Keyword : AI restoration technology, Collective memory, TikTok, Independence activists, Digital media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역사를 재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정적인 역사 자료를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등장한 이미지 투 비디오(image-to-video) AI 기술은 역사의 인물 사진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영상으로 변환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역사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틱톡과 같은 숏폼(short-form) 비디오 플랫폼은 각종 밈(Meme) 등을 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역사 정보의 주요 전달 매체이자 집단 기억이 구성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1][2].

집단 기억 개념은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공유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현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한 집단 기억의 형성은 전통적인 교육 기관이나 매스 미디어를 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3].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집단 기억은 국가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교육이 주로 문자 텍스트와 흑백 사진에 의존해 왔다는 점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역사 인식 형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AI 복원 기술의 역사 콘텐츠는 역사적 거리감을 줄이고 감정적 몰입을 증대시키는 교육적 오락물으로써 새로운 역사 소통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4].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된 독립운동가 영상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집단 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RQ1: AI 복원 기술로 제작된 독립운동가 영상의 수용자들 반응 유형과 분포는 어떠한가?

RQ2: AI 복원 영상이 수용자들의 역사 인식과 학습 동기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RQ3: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되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집단 기억의 특성과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통합적 가치 형성 가능성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집단 기억과 디지털 미디어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틀을 의미한다.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프레임워크 속에서 구성되며, 이러한 기억이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3]. 집단 기억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재구성되며 [5], 특히 미디어는 기억의 전승과 변형을 매개하는 핵심 경로로 작동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집단 기억의 형성과 전승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 미디어가 주로 위로부터의 전달(top-down transmission)을 중심으로 했다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일방향적 정보 전달을 넘어서 다수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 기억의 아래로부터의 구성(bottom-up construction)을 촉진하고 있다 [6]. 이러한 특성은 과거 사건이나 인물을 개인적 경험, 감정, 해석과 결합해 재맥락화하는 과정을 가속한다.

2.2 참여문화와 의미 생산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 개념은 디지털 시대의 수용자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재해석하는 주체임을 강조한다 [7]. 이러한 참여문화는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 중심 플랫폼에서 댓글, 해시태그 등을 통한 능동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 구현된다. 수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역사적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표현하고,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해석을 공유 및 조율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집단적 의미 생산(collective meaning-making)’으로 확장된다. 문화 기억 개념을 통해, 과거에 대한 공통의 해석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8]. 특히 문화 기억은 의례와 상징을 통해 전승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댓글과 같은 참여적 행위가 새로운 ‘의례적 상호작용’으로 기능할 수 있다.

2.3 AI 기술과 역사 재현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역사 재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영상 생성 기술은 과거의 정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변환함으로써, 역사 인물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은 단일 이미지에서 [그림 1]과 같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성하여 역사적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역사 재현은 윤리적, 인식론적 쟁점들을 동반한다.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정확성과 주관적 해석의 개입 가능성은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9]. 또한 AI가 생성한 역사 이미지가 실제 역사와 혼동될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AI 복원 영상이 집단 기억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은, 기술적 구현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 역사교육,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 구현 예시 (출처 : 틱톡 ‘대한민국의 영웅들’)

[Fig. 1] Examples of Image-to-Video Technology for Historical Figures (Source: TikTok channel ‘Heroes of the Republic of Korea’)

2.4 틱톡과 역사 콘텐츠

틱톡(TikTok)은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숏폼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Z세대와 알파 세대들은 전통적인 교육 기관보다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역사 지식의 생산과 유통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적 오락물(edutainment)과 밈을 활용한 공공캠페인의 성공 사례들은 짧고 직관적인 형식의 콘텐츠로서 인식 확산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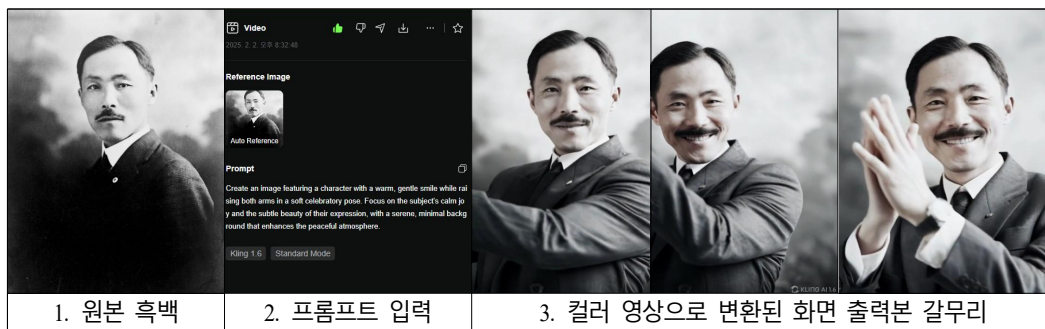
틱톡의 댓글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담론은 집단 기억의 구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나아가 댓글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프로슈머(prosumer)들이 역사적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참여적 실천의 장이 된다. 이는 AI 복원 영상과 결합할 경우, 기술적 재현과 사회적 해석이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역사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영상 제작 과정

본 연구는 2025년 3월 1일 제106주년 삼일절을 기념하여 제작된 독립운동가 AI 복원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영상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가 선정은 역사적 중요성과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15명의 독립운동가(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김구, 홍범도, 안창호, 김좌진, 한용운, 남자현, 윤동주, 서재필, 이봉창, 김규식, 김상옥, 헐버트)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독립운동가에서의 기여도, 다양한 독립운동 분야의 대표성, 그리고 시각 자료의 가용성이었다.



[그림 2] 클링AI를 통해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 구현 장면

[Fig. 2] Scene of Image-to-Video Technology Implementation through Kling AI

AI 기술 활용은 [그림 2]와 같이 Kling AI와 Hailuo AI의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각 독립운동가의 정적 사진을 2-3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환하였다. 특히 미소 짓는 표정을 재현하여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퀴즈 형식 구성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인물이 등장한 후 인물 정보 자막이 나오기 전 2초 안에 이름을 맞추는 퀴즈 형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였다. 이는 수동적 시청을 넘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1분 길이의 영상은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에 2025년 3월 1일 공개되었으며, 그중 틱톡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어 현재 243,400회를 기록하고 있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댓글 수집은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175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다음 순서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 (1) 연구자 본인의 답글 및 대댓글(660개) 제외
- (2) 단순 이모티콘으로만 구성된 댓글(211개) 제외
- (3) 스팸성 광고·홍보성 댓글(20개) 제외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284개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담론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위해 사전 검토된 댓글 자료와 디지털 미디어 담론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7개의 상호 배타적인 범주를 개발하였다. 각 범주는 [표 1]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코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 1] 댓글 유형별 정의 및 예시

[Table 1] Categories of Comment Types with Definitions and Examples

유형	정의	예시
감사/경의 표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직접적 감사와 존경 표현	“감사합니다”
애국심 표현	나라 사랑과 관련된 내용	“대한독립만세”
감정적 반응	영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눈물이 난다”
정치 관련 언급	현재 정치 상황과 연관 지어 비판적 의견 표출	“친일파 척결해야”
반성/무지고백	역사적 인물을 몰랐던 것에 대한 반성	“몰라서 부끄럽다”
기술칭찬	AI 복원 기술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	“AI 기술이 놀랍다”
개인적경험	개인이나 가족사와 연관된 경험담	“할아버지도 독립운동가”

특히, 감정분석은 KoNLPy(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패키지와 한국어 감정 분석 사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된 어휘 사전을 기반으로 각 댓글의 감정적 톤을 분석하였으며,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감정 범주를 검토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시행한 후 일치도를 계산하였으며, Cohen’s Kappa 값은 0.89로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카테고리 개발 과정에서는 전체 댓글의 10%를 대상으로 파일럿 코딩을 2회 실시하여 코딩 기준을 정교화하였다.

3.4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공개된 틱톡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는 모두 익명화하였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역사 인물 복원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활용하였음을 명시한다.

4. 연구 결과

4.1 댓글 반응 유형별 분포

총 1,175개의 수집된 댓글 중 최종 분석 대상인 284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평균 길이는 32.4자로, 대체로 간결한 감정 표현이 중심이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다 훌륭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로 3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표 2] 댓글 유형별 빈도 및 비율

[Table 2] Frequency and Percentage of Comment Types

유형	빈도	비율
감사/경의 표현	109	38.3%
애국심 표현	62	21.8%
감정적 반응(감동/눈물)	44	15.4%
반성/무지고백	30	10.5%
정치 관련 언급	24	8.3%
기술칭찬	11	3.9%
개인적 경험	4	1.8%
합계	284	100%

4.2 주요 반응 유형별 담론 분석

4.2.1 감사/경의 표현의 특징

감사와 경의를 표현한 댓글들은 주로 직접적이고 간결한 형태를 띠었다.

“다 훌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300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웅들이네요 당신들 희생 덕분에 후손들이 살고있습니다.” (좋아요 106개)

“나라 다시찾기위해 싸워주신분들 부디 하늘에서라도 편안하시길 빌어요” (좋아요 93개)

이러한 댓글들은 단순한 예의 표현을 넘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특히 현재 세대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4.2.2 반성적 학습 반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젊은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댓글에서 나타난 반성적 학습 반응이다.

“의외로 이름을 많이 모르는 저네요..ππ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있고 저 또한 편한 세상에 살고있는건데 반성합니다 영상 올려주신님 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해봅니다”

“부끄럽네요 몇분은 몰라봤어요”

“죄송합니다ππ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을 모르고있는분들이 계시네요 부끄럽습니다 ππππ”

“와 저중에 3분의 이름을 모른다는게 부끄럽네요..꼭 기억하게시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AI 복원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기 성찰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4.2.3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

AI 복원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긍정적인 평가였다.

“AI를 정말 정~~말 제대로 사용한 영상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런 영상을 두고 한말인듯... 아니면 후세인 우리들이 어찌 독립운동가님들의 미소를 볼수있겠습니까... 아 감동입니다.”

“이렇게라도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야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유형의 반응은 AI 기술이 역사적 인물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4.2.4 정치적 담론의 양상과 해석

특히 정치적 비판이나 현실 정치와 연관된 댓글 또한 전체의 8.3%로 나타났다.

“친일파재산몰수해서 독립운동가에게로!!!” (좋아요 150개)

“여기에도 계신 홍범도 장군을.. π 윤통은 왜..”

“내란우두머리가 친일인데... 열사분들은 πππ...”

정치적 언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틱톡의 개인화된 콘텐츠 큐레이션 시스템의 영향으로 보이며, 나타난 정치적 언급들은 독립운동가라는 주제가 친일 청산과 역사 인식 문제를 통해 현재 정치와 여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2.5 교육적 효과와 집단 기억 형성

댓글 분석을 통해 AI 복원 영상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잊지맙시다” (좋아요 42개)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수학도 중요하지만 역사 수업은 좀 더 해도 괜찮은듯.....” (좋아요 6개)

“절대 잊어서는 안될 인물들입니다..” (좋아요 8개)

“서울 망우리 공원 묘지에 안중근 유관순 한용운 등 많은 분들이 그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신데 2년전에 그 사실을 알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좋아요 3개)

역사기억/교육 관련 댓글과 반성/무지고백 댓글을 합치면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이는 영상이 역사학습에 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I 복원 독립운동가 영상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집단 기억 형성과 역사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틱톡 댓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틱톡 댓글 분석 결과, 감사/경의 표현(38.3%), 애국심 표현(21.8%), 감정적 반응(15.4%)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치적 언급은 8.3%에 불과했다. 이는 독립운동 역사가 이념을 초월한 통합적 집단 기억으로 작동하며, AI 기술이 역사적 거리감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을 강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AI 기술이 집단 기억 형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며, 디지털 시대 역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젊은 이용자들의 반성적 학습 반응(“몰랐는데 알게 됐다”)은 AI 기반 콘텐츠가 전통 교육이 놓친 정서적 연결과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한다. 틱톡 댓글 공간에서 나타난 활발한 상호작용은 수용자들이 역사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참여문화의 실재를 보여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역사의 민주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AI 기술이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 행동 연구의 확장 가능성과도 일치한다 [10].

본 연구는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 기억 이론을 디지털 맥락으로 확장하고, 아래로부터의 구성 방식의 집단 기억 구성 과정을 실증했다는 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AI 복원 기술과 퀴즈 등 상호작용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했다.

본 연구는 단일 플랫폼에서 수집된 댓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플랫폼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매체별 이용자 특성과 담론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댓글 작성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파악 불가하여 집단별 반응 차이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는 설문 조사나 인터뷰를 병행하여 수용자 특성과 반응 유형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연구 문제에 맞게 설정하고, 데이터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 및 통계적 검증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향후 세대별·지역별 비교 분석, VR/AR 등 신기술과의 융합 탐색뿐 아니라 [12], AI 역사 재현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개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Burgess, J. Green, *YouTube: Online Video and Participatory Culture*, 2nd ed. Cambridge: Polity Press, 2018.
- [2] J. Y. Lee, "The Influence of Memes on Social Network Service Success: A Case Study of Instagram's 'Dokdo Korea'", *JNCIST*, vol. 13, no. 4, August 2024, pp. 537-548, doi: 10.29056/jncist.2024.08.09.
- [3] M. Halbwachs, *La Mémoire Collectiv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4] J. Y. Le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Audience Response Analysis of AI-Restored Historical Content on Short-form Platforms",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Society Conferences*, August 6-8, Suncheon, Korea, pp. 45-48.
- [5] A. Erll, *Memory in Cul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1.
- [6] J. Garde-Hansen, A. Hoskins, and A. Reading, Eds., *Save as... Digital Memor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 [7] H. Jenkins,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2006.
- [8] J.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9] J. Y. Lee, "Leveraging Entertainment-Education and Memes in Public Campaign Content on Social Media: A Case Study of the Instagram Channel Dokdo Korea", *JNCIST*, vol. 13, no. 5, October 2024, pp. 635-647, doi: 10.29056/jncist.2024.10.06.
- [10] N. Song, E. J. Kim, "The Impact of AI Virtual Influencers' Fit and Controlling Entity on Eco-Friendly Consumption", *JDAEM*, vol. 11, no. 3, September 2024, pp. 413-426, doi: 10.29056/jdaem.2024.09.12.
- [11] H. Park, K. H. Choi, "Research Problem Setting and Statistical Issues for Social Network Service Big Data Analysis: A Convergence Perspect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December 2016, pp. 591-597, doi: 10.14400/JDC.2016.14.12.591.
- [12] S. Lee, "Distortion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Historical Reenactmen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ol. 112, March 2025, pp. 9-32, doi: 10.29004/jkmch.2025.3.112.9.